

종이로봇(Paper Robot)

잠자리처럼 날거나 벌레처럼 기어 다닐 수 있는 초소형 로봇으로 셀룰로오스(섬유소) 함량이 높은 종이에 전기를 흘려주면 내부에 떨림이 발생해 마치 근육처럼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했다. 그런 종이에 고주파 신호를 전기로 바꾸는 회로와 얇은 안테나를 덧붙이면 '종이 로봇'이 만들어 지게 된다.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 중으로, 날 아다니거나 기어다닐 수 있어 우주탐사, 무인정찰, 공해감지, 교통량 수집 등 실생활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HUD(Head Up Display, 전방표시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자동차의 전자장비 기술로 차량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앞유리에 표시해준다. 운전자가 계기판을 보기 위해 시선을 이동할 필요가 없어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앞유리에 3차원적으로 속도, 방향 뿐만 아니라 앞차와의 거리, 도로·지리정보 등을 표시해주며 야간에는 적외선을 이용해 앞쪽 물체를 감지해 보여주는 '나이트 비전' 기능도 있다.

트래킹(Tracking)제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수준별 수업제도. 교과별로 학습 내용 난이도에 따라 2,3개 과정(Track)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 이수하도록 하는 수준별 수업제도이다.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특성화된 수준별 교육으로 우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초·중·고생의 5%인 40만명 정도의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업 시간이 많고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큰 영어, 수학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